

	<div>과목명</div> <div>한문문제풀이(32회)</div>	<div>한문시험</div>	<div>감독관 확 인</div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시행 : 12월 26일(일)		수험 번호	성 명		인
문항/ 시간	문항:				

※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(01-02)

不尙賢使民不爭,㉠不貴難得之貨使民不爲盜,不見可欲使民心不亂.
是以聖人之治虛其(㉡),實其(㉢),弱其(㉣),强其(㉤).常使民無知無欲,使夫智者
不敢爲也,爲無爲,則無不治.<老子.3장>

01. ㉠를 해석하시오.
02. ㉡, ㉢, ㉣, ㉤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고르시오.

보기; 頭, 骨, 背, 志, 心, 腹, 手, 足, 面,

※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(03-12)

初余究心是書, 嘗爲摘要, ㉠將以自資, 繼而繹之, 久久則言言金石, 字字珠璣, 竟不知孰可摘而孰可遺, 因奮然鼓念, 冀有以發隱就明, 轉難爲易, 盡啓其秘而公之於人, 務俾後學了然, 見便得趣, ㉡由堂入室, 具悉本原, 斯不致誤己誤人, 咸臻至善. 於是乎詳求其法, 則惟有盡易舊制, 顛倒一番, 從類分門, 然後附意闡發, 庶晰其韞, 然懼擅動聖經, 猶未敢也. 粵稽往古, 則周有(㉢)之摘難, (㉣)有玄晏先生之類分, 唐有㉤王太僕之補削, 元有㉠滑撓寧之撮鈔, 鑒此四君子而後意決. 且此非十三經比, 蓋彼無須類, 而此欲醒瞶指迷, 則不容不類以求便也. 由是徧索兩經, 先求難易, 反復㉥更秋, 稍得其緒, 然後合兩爲一, 命曰(㉦). 類者, 以啓(㉧)之微, 發(㉧)之秘, 相爲表裏, 通其義也. 兩經既合, 迺分爲十類.

03. ㉠문장을 해석하시오.
04. ㉡의 속뜻을 간단히 쓰시오.
05. ㉢에 알맞은 인물을 漢字로 쓰시오.

06. ㉔에 알맞은 國名을 漢字로 쓰시오.

07. ㉕의 이름을 漢字로 쓰시오.

08. ㉖의 이름을 漢字로 쓰시오.

09. ㉗의 의미를 간단히 쓰시오.

10. ㉘에 알맞은 단어를 漢字로 쓰시오

11. ㉙의 저작을 모두 고르시오.

① 讀素問鈔

② 難經本義

③ 診家樞要

④ 十四經發揮

12. ㉚와 ㉛에 알맞은 단어를 漢字로 쓰시오.

※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(13-22)

夫人之大事，莫若死生，能葆其眞，合乎天矣，故首曰(㉔)類。生成之道，兩儀主之，陰陽既立，三才位矣，故二曰陰陽類。人之有生，藏氣爲本，五內洞然，①三垣治矣，故三曰藏象類。欲知其內，須察其外，脈色通神，吉凶判矣，故四曰脈色類。藏府治內，經絡治外，能明終始，②四大安矣，故五曰經絡類。萬事萬殊，必有本末，知所先後，握其要矣，故六曰(㉕)類。人之所賴，藥食爲天，氣味得宜，③五宮強矣，故七曰氣味類。

④駒隙百年，誰保無恙，治之弗失，危者安矣，故八曰(㉖)類。疾之中人，變態莫測，明能燭幽，⑤二豎遁矣，故九曰疾病類。藥餌不及，古有鍼砭，九法搜玄，道超凡矣，故十曰鍼刺類。至若天道茫茫，運行今古，苞無窮，協惟一，推之以理，指諸掌矣，故十一曰(㉗)類。又若經文連屬，難以強分，或附見於別門，欲求之而不得，分條索隱，血脈貫矣，故十二曰(㉘)類。彙分三十二卷，此外復附著圖翼十五卷。蓋以義有深邃而言不能該者，不拾以圖，其精莫聚；圖象雖顯而意有未達者，不翼以說，其奧難窺。自是而條理分，綱目舉，晦者明，隱者見，巨細通融，岐貳畢徹，一展卷而重門洞開，秋毫在目，不惟廣裨學，卽凡志切尊生者，欲求茲妙，無不信手可拈矣。 <類經序>

13. ㉠에 알맞은 단어를 漢字로 쓰시오.

14. ㉡에 알맞은 단어를 漢字로 쓰시오.

15. ㉢에 알맞은 단어를 漢字로 쓰시오.

16. ㉣에 알맞은 단어를 漢字로 쓰시오.

17. ㉤에 알맞은 단어를 漢字로 쓰시오.

18. ㉦의 문맥상의 의미를 간단히 쓰시오.

19. ㉧의 문맥상의 의미를 간단히 쓰시오.

20. ㉨의 문맥상의 의미를 간단히 쓰시오.

21. ㉩의 의미를 쓰시오.

22. ㉪의 속뜻을 쓰시오.

< 明心寶鑑 > ()에 맞는 글자를 쓰시오.(23-36)

23. 家語云, 水至()則無魚, 人至()則無徒。

24. 許敬宗曰, 春()如膏, 行人惡其泥濘, 秋()揚輝, 盜者憎其照鑑。

25. 景行錄云, 大丈夫, 見善明故, 重名節於()山, 用心精故, 輕死生於鴻()。

26. 悶人之凶, 樂人之善, 濟人之(), 救人之危。

27. 經()之事, 恐未皆眞, 背後之言, 豈足深信。

28. 不恨自家蒲繩短, 只恨他家苦()深。

29. 賊濫滿天下, ()拘薄福人。

30. 天若改(), 不風卽雨, 人若改(), 不病卽死。

●卽과 則은 같은 글자?

卽을 흔히 則과 같은 뜻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그 쓰임새가 전혀 다른 글자이다. 則은 두 문장을 이어주는 일종의 접속사로서 앞 문장을 가정으로 해석하거나, 또는 일의 선후 관계를 나타낼 때 쓰이는 글자이고, 卽은 일종의 부사로서(술어 앞에서 한정하거나 또는 단순히 부사로) “곧, 바로, 당장”의 뜻이다. ㉠卽死(즉사), 卽興(즉흥), 卽時(즉시), 一觸卽發(일촉즉발). 옥편에 卽과 則을 모두 “곧 즉”으로 풀어 놓아서 그 쓰임새마저 같은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다른 글자임에 유의할 것

31. 狀元詩云, 國正天心順, 官清民自安, 妻賢夫過(), 子孝父心寬。

32. 子曰, 木受繩則直, 人受諫則()。

33. 一派靑山景色幽, 前人田土後人收, 後人收得莫歡喜, 更有收人在()頭。

34. 蘇東坡云，無故而得千金，不有大福，必有大()。

35. 康節邵先生曰，有人來問卜，如何是禍福，我()人是禍，人()我是福。

36. 大廈千間，夜臥八尺，良田萬頃，()食二升。

동익 M 스쿨